

내수 신장·매출 극대화 대규모 세일 눈길

지역 대형유통업체들이 내수 신장과 매출 극대화를 위한 대규모 세일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8일 광주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기념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 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미국에서 열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세일 행사로 개전절 연휴와 중국의 최대 연휴인 국경절에 맞춰 시작한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광주신세계는 올해도 할인행사 및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통해 특수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행사엔 패션·식품·잡화·생활 등 300여개 브랜드가 함께 하고 최대 30% 할인이 적용된다.

대표적 브랜드로 리바이스 키즈·타미힐피거칠드런·올젠 남성복·GAP 등이다. 또, 닥스·헤이스 핸드백·금강, 랜드라보·탠디 구두·남성복 킷아웃엔드슨·레노마 등은 20% 할인 특가전

지역백화점 '코리아 세일 페스타' 불꽃경쟁 돌입

광주신세계 어제부터 300여개 브랜드 최대 30%

롯데광주점, 갤럭시노트8 등 경품·감사품 증정

이 진행된다.

이밖에 제이에스티나 주얼리·메트로 시티 핸드백·바이너리 구두·톰보이·CC클래트·지켓·마에스트로 등이 10% 할인된다. 여기에, 패션 브랜드를 포함해 식품과 생활 장르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이 1만원에서 1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인다.

지하 1층 생활매장에서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맞이 테팔 특별전이 개최된다. 제이미 올리버 SS에브리데이 전제품이 45%, 한국형 냄비 뉴 헤리티지 시리즈는 40%에 할인 판매된다.

해당 브랜드에서 10·30·50·100만원 이상 구매시, 신세계상품권 5,000원·2만·4만·10만원이 증정되는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광주신세계는 29일까지 지하 1층 사

는 행사장서 추석 선물세트 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시 신세계 상품권 5%를 증정한다.

박인철 광주신세계 영업기획 팀장은 "대규모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집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에 걸맞게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알찬 혜택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총 480여개 브랜드가 할인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경품과 감사품을 증정하는 가을 정기 세일을 시작한다. 세일 기간 전 상품군에 걸쳐 101개의 상품을 초특가에 선보이는 'PRODUCT 101'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의류, 잡화, 아웃도어,

리빙 등 전 상품군에 걸쳐 단 하루 동안 선보이는 GOLDEN DAYS5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세일 기간 총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갤럭시 노트8을 증정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2,600명에게 사물인터넷 음성인식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가을 시즌을 맞아 이날부터 10월 10일까지 아웃도어 대전 및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코오롱스포츠·블랙야크·노스페이스 등 총 10여개의 유명 브랜드들이 참여해 모두 40여원의 물량을 쏟아내고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문화이벤트도 마련했다.

문화센터 11층 다목적홀에서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 매직 별문쇼', 반짝반짝 빛나는 'LED버블 매직쇼', '피카츄 캐릭터쿠키 만들기', 왁자지껄 웃음 폭탄 인형극 '아기 공룡 루비 메가파워', 가족인형극 '파이도독을 찾아라' 등이 진행된다.

/고광민 기자

여수시 발주, 웅천~소호간 해상교량 건설 삼능·남양건설 컨소시엄 공사 수주

570여억원 투입, 2022년 준공 목표

해상 교량 500m 등 왕복 4차로개설

여수시가 발주한 약 570억원대의 웅천~소호간 해상교량 건설공사를 삼능건설과 남양건설의 컨소시엄팀이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여수시 웅천 택지 개발 후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현상 해소를 위해 500m길이의 해상교량을 포함한 웅천~소호 사이 도로 개설이 추진된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단일노선인 웅천~소호구간은 최근 웅천택지개발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해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사업비 570여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웅천지구 예울마루 부근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소호동으로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한다.

사업규모는 총 1,148m로 아치교가 100m, PSC교가 400m 등 교량이 총 500m이고 진입도로가 648m다. 도로 폭은 20.5m~22.8m로 왕복 4차로다.

지난해 6월 해상교량 형식의 노선결정 이후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해온 여수시는 앞으로 기본설계서에 대해 전남도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수시는 공사 완공 시 해상교량을 포함한 이 도로가 외부순환도로 기능을 해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돌산지역과 여서·문수지구, 웅천지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나오는 교통량이 웅천생태터널을 지나는 기존 도로와 새로 만들어진 해상교량으로 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새로 건설되는 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소호동의 해변과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돌산대교, 거북선대교와 함께 여수의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전남 콘텐츠 창작 공모전 개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11월 6~15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11월 6~15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2017 전라남도 콘텐츠 창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콘텐츠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민들에게 모바일 환경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됐다.

공모는 콘텐츠 기획과 모바일 앱 콘텐츠 제작 총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콘텐츠 기획 분야는 만화·웹툰·게임·출판·영상과 공연 분야의 사업화가 가

능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주제로 지난해 전남 설화 발굴 조사사업으로 이뤄진 11개 시·군의 설화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1개 시군 설화는 전남 콘텐츠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콘텐츠 제작 분야는 전남도의 캐릭터인 남도와 남이 또는 11개 시·군의 설화를 활용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부문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가 가능하며, 팀으로 응모하는 경우 대표자 포함 4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 2.0~2.4% 상승

호남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9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2%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모두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서비스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60으로 전월 대비 0.2%, 작년 동월 대비 2.0% 각각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4.14로 전월 대비 0.4%, 작년 동월 대비 2.7% 각각 올랐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전월 대비 0.6%, 작년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 작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3.71로 전월 대비 0.2%, 작년 동월 대비 2.4% 각

각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04.49로 전월 대비 0.4%,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각각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전월 대비 0.6%, 작년 동월 대비 2.6%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고광민 기자



애견용품 구경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8일 애견용품 전문디자인 브랜드 '다솜'이 9층 매장에서 팝업스토어 행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삼구 결단, 금호홀딩스-금호고속 합병

금타 경영권 포기 대신 지주사 합병 성공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대신 지주사의 합병에 성공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6월 금호고속 지분 100%에 대해 풀 옵션(4,375억 원)을 행사했다. 합병은 워크아웃 그룹의 지배구조 재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를 위해 금호고속은 지난해 말부터 내부적으로 합병을 위한 사전 작업을 검토했으나 절차를 미뤘다.

합병을 완료하려면 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산업은행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출 640억 원을 바로 상환해야

만 한다. 상법상 채권자 보호 조항에 따라 합병 시 채권자의 이익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채무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 합병으로 박 회장은 고 박인철 창업주가 일으킨 옛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거의 갖추게 됐다.

비록 금호타이어는 빠져지만 그룹의 모태 기업인 금호고속을 합병했기 때문이다. 지주사인 금호홀딩스가 금호터미널, 금호고속, 금호타이어 등 핵심 사업부를 품고 있는 구조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홀딩스는 연간 6,000억 원의 매출 및 800억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EBITA(세전영업이익)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

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구조도 안정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애 기자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은 최근 신협구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장과 협력센터 배명한 소장, 전경련경영자문단 유원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영애로 해소와 판로개척을 위한 자문 ▲창업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등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정보교류 및 양기관 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협력기로 했다.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大山 프리모 남미 가발
062) 673-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북구 용동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용동삼거리 부근

탐TV LED TV
광주-전남 총판
대표 주문번호 1588-3089

소니서비스센터 광주
062) 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24번지 (당동오거리)